

(3) 3

# 제3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20

| 학교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| 학년 | 생년월일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호치민인문사학회 하<br>대학교 | Pham Ho Chi Mai | 4  | 1993년 06월 08일 |

베트남 사감의 표정  
나는 한국학부 학생으로 서 한국 북사  
단들과 같이 베트남에 있는 기간한 곳  
에 자작간다. 병사한동은 동(예)한국어  
능력을 연습할 수 있을 뿐더러 한국에  
서 온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 
모르곤 좋았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 
동역하는 일을 했을 때 베트남 사람과  
한국 사람 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 
알게 되었다.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 
인연을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같이  
학생들에게 과목을 가르쳐주는 이야기  
있었고 또 마치 같이 밥을 먹는  
처럼 이 야기도 있었다. 그 이야기 중에  
나는 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.  
나는 3학년 때부터 동역부사자로 서  
많은 곳에 갔다. 제일 기억하는 곳은  
베트남 남쪽에 있는 빈쿵성인 듯하다.  
빈쿵성은 미군과 베트남 의 전쟁 때에  
많은 손해를 받은 개판한 곳이다. 한  
두시간 가는데 나는 LS해위부사단과  
곳에 찾아왔다. 병사한동은 힘에 도  
부구하고 언제나 한참 웃음이 가득하  
다. 한국 북사자와 베트남 동역부사  
관 함께 웃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.



# 제3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| 학교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| 학년 | 생년월일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| Pham Ho Chi Mai | 4  | 1993년 06월 08일 |

고 서 학 교 를 수 리 하 고 새 로 운 학 교 를  
만 들 기 위 해 변화 를 했 다. 해 야 하 는 일  
이 그 령 계 많 은 데 봄 사 환 동 기 간 이  
아 서 연 제 는 지 분 위 기 가 북 라 북 라 하 연  
다. 특 히 마 을 에 있 는 사 람 들 은 도 움 더  
에 일 을 잘 마 무 리 했 다. 단 기 운 밤 상 을  
준 비 해 놓 아 주 는 것 이 나 일 을 했 을 때  
간 식 을 주 는 것 을 특히 대 응 사 람 들 의  
대 응 한 마 음 은 그 령 계 수 있 는 다. 한 국  
사 람 이 든 배 트 남 사 람 이 든 구 별 없 이 다  
장 대 해 주 이 다 는 이 응 는 <sup>한 사람</sup> 받 기 기 간 난 한  
곳 에 학 아 오 고 새 학 조 건 이 북 주 했 을  
에 도 불 구 하 고 연 지 고 불 사 환 동 을 해  
적 서 다 착 한 사 람 이 라고 말 했 다. 식 는  
시 간 에 우리 봄 사 자 들 이 아 이 들 과 합  
계 잘 볼 아 나. 봄 사 당 의 간 사 님 이 아 이  
들 이 저 령 게 잘 볼 터 서 예 기 지 기 즐 겁  
게 덕이 가 는 자 명 을 불 기 다 서 눈 밑 을  
금 상 수 받 았 다. "아 이 들 이 간 난 한 화 령  
에 도 이 령 계 일 군 에 고통 줄 이 피 나 는  
것 이 정 말 예 배 요. 그 런 데 전 쟁 의 수 해  
대 문 에 태 어 나 지 만 자 건 강 하 지 않 는 아  
이 가 있 어 서 마 음 이 너 무 아 파 요. 배 트  
남 인 이 지 금 받 은 전 쟁 의 수 해 는 우리  
한 국 인 의 과 거 탓 이 한 북 분 이 예 요. 그

# 제3회 동남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

| 학교    | 성명                | 학년 | 생년월일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한민대학교 | Pham No. Clui Mai | 1  | 1998년 06월 08일 |

캐서 지금까지도 한국인은 자책감이 많  
 이 나요"라고 말씀하셨다. 그 때 간  
 사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서 한 할머니  
 가 와서 물었다:  
 - 간사님 왜 울어요? 어디 불편한데요?  
 요? 이 코코넛을 드시고 시원해지기예요.  
 - 아니요. 저는 펜잡습니다. 할머니 집  
 문고문을니다. 응리 부사댁에게 많은  
 도와 주셨고 응리 미안하느 다음을 반  
 아 주셨으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 
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.  
 - 에이 그 간사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  
 세요. 귀머거리 귀머귀고 전제이다 지  
 나 이야기잖아요. 아포게 하느 이야기 지  
 만 이제 배트 상관을 이다 잊었습니다  
 다. 한국 사관처럼 전쟁의 손해를 받았  
 데도 미래에 항해 응리 나라를 발전시  
 케야 해요. 그 캐서 한국 사관들이 제  
 자책을 하지 않아도 돼요.  
 이렇게 할머니가 부사님의 말씀을  
 알아 주셨고 "괜찮아요! 괜찮아요!"라고 응  
 리에게서 "대안"합니다! 고맙습니다! 그리고  
 했습니다. 나는 할머니와 간사님에게 통역해 주  
 는 사관인데 응리도 금강수 없었습니다.



